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청도이공대학교 천타오대학	기숙사비	6000/한 학기
파견지역	중국 칭다오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2019.09.02.~2019.12.31	기타비용	생활비매달3000위안+α

##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 1 .14

파견자 :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청도이공대학교에 도착한 후에 이를 뒤에 분반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분반시험은 자신의 중국어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시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보셔야 합니다. 분반시험을 본 후에 반이 나뉘는데 조금 A, B반 중급 A, B반 이렇게 나뉘집니다. 고급반은 제가 있을 때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A반은 중국어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 조금 B반은 hsk 3~4급 정도의 실력, 중급 A반은 hsk 4~5급 정도의 실력 중급 B반은 hsk 5~6급 정도의 실력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마다 수업 진행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은 모든 반이 월~금 8~12시로 동일하고, 본인이 있었던 중급 A반 수업은 월, 화, 목, 금 8~10시는 보야수업이었고, 총 16단원으로 나뉘어진 책으로 단원마다 교수님께서 준비해오신 ppt로 단어를 공부하고 본문을 공부하는 식이었습니다. 1단원이 끝날 때 마다 단어시험을 치뤘고, 4단원이 끝날 때마다 hsk형식과 비슷한 쪽지시험을 치뤘습니다. 수요일 8~10시는 hsk쓰기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 작문 수업이 있었습니다.

월 수 금 10~12시는 회화 수업이 있었고 회화 수업 때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나 회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제일 유용했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 목 10~12시 수업은 듣기 수업이었는데 듣기 책으로도 수업을 하고 가끔씩 실생활에서 중국인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듣기실력을 키우는 연습도 하였습니다.

모든 수업들이 과제는 부담 없이 내주시는 편입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학교는 칭다오 청양구에 위치해 있으며, 관광지랑은 거리가 좀 있지만 류탕공항과는 가까운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시내를 버스를 타고 2-30분정도 나가면 따베이취가 있습니다. 따베이취에 완상청과 짜자위엔이라는 복합쇼핑몰이 있으며 최근에는 완다몰도 생겨서 주변 편의시설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4광장이 위치해 있는 칭다오에서 가장 큰 시내를 이춘시장까지 택시를 타고 거기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양구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음식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후문에도 한국 음식점이 있고 시내로 나가면 김가네, 엽기떡볶이, 한정식집, 홍익돈까스 등등 한국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에 있는 식당들과 노점상들도 나쁘지 않으니 그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산둥 지방에 위치해 있다보니 음식들이 대부분 짠 편입니다.

기후는 바다 근처라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편입니다. 그리고 더운 날과 추운 날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옷을 잘 생각하고 들고 오셔야 합니다. 비는 잘 오지 않았던 편입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6000위안/보증금 50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술, 담배 금지 통금 10시 30분이나 앞 쪽문으로 24시간 이용가능 전기장판 등 불 날 수 있는 기기 사용금지		
주요사항	전기가 약해서 헤어드라이기와 온수기를 같이 사용 못함 온수기는 약 30분 동안 사용가능 기숙사담당선생님이 불시적으로 점검을 하니 유의하기 바람.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진 첨 부	본인이 살았던 방은 2인 1실으로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1개, 책꽂이 선반 1개, 신발장 1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에 비해 방이 좀 비좁아서 책상을 마주보는 형식으로 배치를 했어야했습니다. 라디에이터도 한 쪽 벽면에만 있어서 창문과 가깝게 침대를 배치하면 추우니 여분의 담요를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불시점검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니 전기장판 등은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방이 많이 좁습니다.
	방에는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신청해서 마실 수 있지만 그냥 물은 사마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냉장고도 14층에 공용냉장고가 있고, 개인 냉장고를 신청을 하면 겨울에는 딱히 쓸 일이 없었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14층에 공용 전자레인지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 사 진 첨 부

화장실은 변기, 세면대, 샤워시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수는 30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평소에 계속 켜놓고 있어야 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잘 안하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므로 화장실 청소는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유학생 기숙사 1층에는 편의점, 식당, 과일가게, 카페가 있습니다. 유학생 카페에서 공부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저 카페로 많이 모입니다. 본인은 1층에 있는 과일가게를 가장 자주 이용했는데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과일도 그 곳이 가장 맛있으니 그 곳에서 사드 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 내부에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하는 곳에 가서 빨래를 맡겨야 합니다. 물빨래만 하면 7위안, 건조까지 하면 10위안입니다. 건조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숙사 내부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물빨래를 하고 건조대에 널어 놓아도 하루만에 빨래가 다 마르곤 했습니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중국 교환학생을 시작하기 전에는 솔직히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단 기어학연수를 통해 중국을 조금 경험해보긴 하였지만 교환학생이라는 4개월의 시간동안 과연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금 저에게 교환학생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배웠던 중국어보다 4개월의 중국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저 스스로도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할 때는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직접 호텔도 예약해야하고 모든 것이 실전으로 중국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중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수업 부분에서도 교수님들이 정말 성의껏 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학기 초반에 비해 끝날 때 쯤에는 초반에 잘 들리지 않아 힘들어했던 모습도 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주면서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정말 급진적이게 중국어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을 가기 전에 중국 음식이 나와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거기서 아프면 어떡하지, 중국은 한국에 서처럼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 불편해서 어떡하지 등등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활을 통해 느낀 점은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해 갔던 모든 걱정들이 정말 다 별 게 아니었다는 것을 느낀 중국 생활이었습니다. 칭다오 청양구는 한국인들도 많이 사는 곳이어서 한국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팠을 때의 걱정도 학교 내에도 양호실이 있고, 학교 내에 한국어를 할 수 있으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사용도 vpn을 사용하면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환학생을 가서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교환학생을 가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입니다. 내가 중국까지 공부를 하러 왔고 정말 많은 변화를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부터 하려던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스트레스만 더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한국에서 본인보다 중국어 공부를 더 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보다 중국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그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으로 인해 그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친구들과도 얘기를 많이 했고 결국 느낀 것은 고작 이 4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자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즐기면서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때부터 본인 스스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 생활을 좀 더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생활이 더 기억에 남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